

KC GREENHOLDINGS

2012 NEWS LETTER Vol. 36



Contents

2012.08

- 부산착공식 보도자료

3

- KCGH-마이크로원
협약식
- 우수환경업체 보도자료

4



- 안성유리공업 준공식
- KC 여름캠프 개최

5

- 안성유리공업 특허취득
- KC환경건설 생태산업
단지 지정업체 선정

6



- 특집1 K1 Grand open
- 특집2 인턴소감발표
- 특집3 Workshop
- 특집4 활력회복노하우

8

KC코트렐-르노삼성태양광발전소 착공식 보도자료

지난 2012년 7월 9일 세계최대규모의 국내최초의 20MW 규모의 르노삼성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이 있었다.

이에 KC코트렐은 한국동서발전과 공동출자하고 설치 및 시공(EPC)을 맡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주차장(20MW)을 활용하여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루게 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정책에 부응하는 만큼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이를 보도했다.

태양광발전소는 '투자상품' -2012년07월9일 <한국에너지신문 남수정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지붕과 주차장에 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진다. 올 연말까지 완성차 주차장과 고객 주차장에 13MW, 지붕에 7MW의 발전 설비가 설치된다. 기존 건물과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발전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동서발전, KC코트렐, KB자산운용이 참여하는 부산신호 태양광발전소는 규모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 금융권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인정받은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이다. 발전소 성능보증(발전효율)을 통해 순수하게 '캐시 플로우'를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전체 사업비 560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투자비를 이렇게 마련했다.

KC코트렐 관계자는 "부산신호 태양광은 IRR 8% 이상 가능한, 채권보다도 수익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과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의 시각이 변했다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사업, 발전소 자체는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다른 사업에 비해 저평가 받아온 처지였다. 때문에 별도의 부동산 담보나 보증 등이 있어야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가능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가 금융권에서도 인정하는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으면 시장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일사량 데이터처럼 발전시스템 성능에 대한 데이터가 5~6년 치 정도 축적되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분야에서 진화와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막에 쏠려 있던 정부 R&D 지원의 무게중심이 결정질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결정질 실리콘 분야 국책 R&D 과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앞으로 2~3년 내에 세계시장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차세대'에 대한 투자가 무의미하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R&D 방향 역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태양광 R&D가 가치사슬 '연계형'이었다면 앞으로는 '통합형·축합형'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조업 역시 폴리실리콘, 모듈 등 단품만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업방식에서 발전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가격경쟁 중심의 태양광 시장도 존재하지만 모듈의 장기신뢰도와 전체 발전시스템 출력이 부각되고 있다.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발전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스템 출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시장의 주도권이 제조사에서 소비자(발전사업자, 투자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르노삼성차, 세계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2012년7월9일 <뉴스시 최현기자>

르노삼성차가 부산공장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2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9일 부산공장에서 지식경제부, 부산시, 한국동서발전, KC코트렐 등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발전소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동서발전, KC코트렐 등과 함께 3자간 협약으로 부산신호태양광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공장 내 유휴지(주차장, 공장지붕) 30만㎡ 부지에 560억원을 들여 건설된다. 연간 발전량은 2만4600MWh로, 부산공장 인근 7500세대 규모의 명지신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연간 1만3000t.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일 공장부지를 활용한 세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최초의 태양광발전소"라고 밝혔다. 한편 르노삼성차는 지난 1월 경남 함안에 위치한 함안부품센터에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 하고 있다.



KC그린홀딩스-마이크로윈 협약식

KC그린홀딩스(주)는 7월25일자로 (주)마이크로윈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KC그린홀딩스(주) 대표 이태영사장과 (주)마이크로윈 대표이사 전혁수사장, 그리고 KC환경서비스(주) 이재영 사장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마이크로윈의 보유주식 중 총 140주를 인수하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주)마이크로윈은 Filter bag의 기술과 Filter Media유통 및 미세기공 Membrane개발 등의 필터 제조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대기환경업체이다.



KC코트렐 2012우수환경업체 보도자료

지난 7월 5일 KC코트렐은 한국환경기술산업원 “우수환경업체”로 최종 선정, 환경부로부터 2000만원의 지원금 및 해외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되었다.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우수환경업체 수여식현장을 주요언론에서 보도하였으며, KC코트렐은 최종 선정 된 10개의 업체 중 당당히 자리를 나란히 하며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시장 진출의 잠재력까지 입증하였다.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세계 환경시장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올해 첫 우수환경산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며 우수환경산업체가 해외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제 2의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서 수여식 현장 및 선정된 10곳의 환경부 우수환경업체는 중앙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환경TV뉴스, 환경일보 등의 17곳의 언론사로부터 보도되었다.



26일 과천 과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2012 우수환경업체 지정서 수여식'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선정 기업 대표들과 인사말 나누고 있다. 우수환경업체 지정은 환경시장 확대 및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했으며,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우수환경기술을 선정, 2천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2.7.26/뉴스1)



안성유리공업 준공식

8월2일, 안성유리공장 신소재 생산시설 준공식이 있었다. 이번 준공식은 첨단 에너지절감 소재인 Frits 생산하게 된 기념으로 KC그린홀딩스, Electro Glass, 협력사 관계자 및 대표이사 임원들이 자리를참석하며 치러졌다. 준공식 행사는 KC코트렐 이달우 회장의축사로 막을 올리며 전반적인 공사개요, 프로젝트 브리핑 그리고 유공자 표창 수여식 순서로 치러졌다. 안성유리는 친환경유리용기와 더불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친환경소재인 Frits 를 생산함으로써 제2의 도약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물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KC의 사명 수행에 앞장서게 되었다.



KC 임직원자녀 여름캠프 개최


지난 7월 24일, 하계방학을 맞아 KC코트렐은 FUN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환경캠프를 개최하였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견학캠프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환경과 미래연구소의 주관아래 안성과 영흥화력발전소 등을 거쳐 KC 견학캠프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안성공장의 유리 제작과정과 화력발전소 현장탐사 그리고 안성팜랜드와 갯벌체험을 통해 배움과 재미가 공존한 캠프가 되었다는 참가학생들의 평으로 광범위한 일정 속, 무사한 막을 내렸다.



안성유리공업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특허취득

안성유리공업은 지난 7월 11일 유리 용해로에서 나오는 450℃ 고온의 배출가스와 전기집진기 후단에서 배출되는 210℃ 저온 배출가스를 열 교환을 통해 승온 시킨 300℃ 이상의 고온 폐 가스를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해온 결과 이와 관련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 특허는 승온된 300℃의 배출가스를 활용하여 최소 5kg/cm2 Steam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LNG보일러를 대체하여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배출가스 처리시스템(특허 제10-1166476호)이다.

안성유리는 현재 “유리병 검사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배출가스 탈질장치 승온시스템 및 이를 적용한 배출가스 처리시스템”과 이번에 취득한 “배출가스처리시스템” 특허 3개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유리 관련 기술의 제품화 및 환경 관련기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10-1166476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2011-0088009 호	제 2011-0088009 호
	출원일 (FILING DATE (YY/MM/DD))	2011년 08월 12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 (YY/MM/DD))	2012년 07월 11일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특허권자 (PATENTED)
안성유리공업(주) (110111-0*****)
충남 천안시 임창면 도림리 330

발명자 (INVENTOR)
등록사항관에 기재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2년 07월 11일



특 허 청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연차등록료 납부일은 신청등록일 이후 4년차부터 매년 07월 11일까지이며 등록원부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KC환경건설(주) 전북EIP사업단 생태산업단지 지정업체 선정

KC환경건설(주)이 전북EIP(Eco industrial park, 생태산업단지) 사업단으로부터 생태산업단지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KC환경건설(주)은 지난 13일 군산시 내초동 군산공장에서 생태산업단지 지정 현판식을 갖고 직접 참여하게 된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과 기업의 구축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KC환경건설(주)은 전북EIP사업단의 지도로 전북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와 페이퍼코리아, 미래페이퍼 등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혼합 건설폐기물 내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고품연료화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 KC환경건설은 이 사업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으로 고품연료 자원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북과 충남지역의 건설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 가운데 폐합성수지를 고품연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석구 전무는 “EIP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배출을 제로 화(zero emission)를 목표로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열, 폐수 등에 대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해 원료나 열원, 에너지원 등으로 재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생태계의 먹이사슬구조를 산업단지에 적용한 것”이라며 “특정폐기물로 지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연료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을 만들고 나눠쓰고 다시 쓰는, K-ONE 오픈식



K-ONE 오픈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KC코트렐 직원들과 김효근 교수.

지난 7월 20일(금), 서동영 부사장, 김효근 교수, 김종열 감사, 전풍림 감사, 김정완 전무, 최영희 전무, 임창호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K-ONE Grand 오픈식이 열렸다.

지식경영 TF는 이날 오픈식에 맞춰 2012년 7월 2일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약 3주간 보완, 정비하는 기간을 갖고 KC 코트렐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날 지식경영 TF장이자 KC코트렐의 CKO(Chief Knowledge Officer)인 임창호 상무는 개회사를 통해 “외부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쟁상황에서 지속적인 혁신으로 KC코트렐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식경영은 필수 불가한 것이며, 이를 K-ONE을 통해 이룰 수 있다. K-ONE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협업을 통한 상호학습, 업무 산출물의 체계적 관리, 지식의 전이,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여 세계 속의 KC 코트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번의 접속을 통해 자료, 지식 공유, 이메일, 전자 결제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이중 모바일 웹(Lite 버전 접속)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현장 업무가 많은 KC코트렐에 최적화된 도구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앎 x 함 = 삶/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김효근 교수는 “지식은 사막의 물처럼 함께 나눌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기에 KC코트렐 구성원들도 K-ONE을 통해 더욱 가치 있는 지식을 만들기 바란다”고 하였다. 오픈식의 마지막을 장식한 서동영 부사장은 선포사를 통해 “K-ONE은 변화가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SMART한 KC코트렐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세계 환경시장에 우뚝 서는 KC코트렐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지식경영 TF는 오픈식에 참여하여 많은 격려를 보내준 KC코트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으며,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특집2. 2012 KC하계 인턴 “나도 한 마디”

KC코트렐은 지난 7월 4일, 8명의 하계인턴사원을 뽑았다. 각 부서로 투입 된 이후, 인턴 종료기간을 3주 남겨둔 상황에서 당차고 포부 있는 인턴사원들의 KC를 향한 외침의 한마디를 특집기사에 실었다.

해외사업부: 박기선/ 김상현/ 김서현

제철사업부: 권혜진/ 서동민

발전민수사업부: 이종부/ 김규창

기획팀: Edward Park



해외사업부 김서현

KC코트렐에서 6주간 인턴으로 생활하며...

평소 공정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었기에 해외사업부 기술팀에 배치되어 Peer guide 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설렘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출근하였다. Peer guide님과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맡길 때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때 가장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K.ONE 인턴 공통업무를 하면서 인턴으로써 소속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려 하였다. 하지만 교육기간이 너무 짧고, 약간의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꼈기에 그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잔 업무들만 처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수한 플랜트교육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P&ID나 Valve, Supply list 등을 직접 다루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에 나가기 전 직접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논문으로 인하여 6주간 일하였지만, 해외사업부에 큰 누가 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친절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셨던 해외사업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철사업부 서동민

KC 코트렐 인턴 생활을 하면서
(지난 한 달간의 인턴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4학년 여름 방학, 대학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여름 방학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해 KC 코트렐 인턴쉽에 지원했는데 이렇게 합격하여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인턴 교육을 통해 회사 소개를 받으면서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회사생활을 보는 것과 직접 회사 부서에서 생활하면서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바쁜 회사업무 속에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업무 자세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도 좋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는 곳이라 인턴기간 내내 감사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평소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어떤 것이 중심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번 인턴활동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턴생활을 통해 회사에서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마지막 4학년 여름방학

KC 코트렐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발전민수사업부 김규창

찾아오는 더위와 함께 시작되었던 나의 인턴생활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익숙해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7층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비록 떠돌이 신세였지만) 잠시나마 회사의 일부가 되어 지켜본 KC코트렐 분들은 무더운 여름날씨만큼이나 열정적 이었다. 일음을 넣은 커피한잔과 아침을 시작하여 하루 종일 모니터를 쳐다보며 전화업무와 하고 마치 일생을 볼 태우듯이 하루를 보낸다.

모든 분들이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가득한 채 나의 시간을 흘려 보내다 어느새 8월도 반이 되어가려 한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간 시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 한 켠에 좋은 경험으로 간직하고 싶다.



발전민수사업부 이종부 인턴생활 간단 요약

1. 도면보기

처음 컴퓨터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P&ID 도면과 엑셀 파일의 LINE number를 비교, 체크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령이 생겨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도면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지금도 모른다.)

2. 전화 돌려받기

어느 날부터 전화를 돌려받기 시작했다. '제발 전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생각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릴까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3. K-one 자료이관

음.. K-one 마일리지 1위를 달성하게 해준 고마운 업무였다. 네트워크에 있는 파일을 K-one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것이었는데, 힘들다기보다는 다소 지루한 작업이었다. 그렇지만 업무를 다 마쳤을 때와 쌓여있는 K-one 마일리지에 난 뿌듯해졌다.(마일리지 환전은..)

4. 자료 출력, 복사 및 스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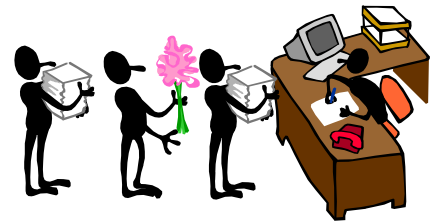
단순히 출력, 복사만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님을 여기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 학교에서 수업자료나 뿔다가 사무실에서 수 백장의 계약문건을 뽑으니 출력, 복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었다. 스캔도 마찬가지.

5. 이춘복 참치

인턴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은 바로 그곳이다. 가기 전부터 '춘복이 형'을 연호하던 인턴들은 다녀와서도 '춘복이 형'을 그리워하였다. 결정적으로 나에게 '참치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곳이다. 앞으로 종종 찾아갈 듯.

6. 발전민수 기술팀

인턴ships을 시작한지 이제 한 달, 나는 발전민수 기술팀으로 오게 되었다. 회사생활에 대한 궁금함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인턴ship 생활인데, '이런 곳이라면 괜찮은 회사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분위기도 좋고, 좋은 분들이 계셨다. 기존에 '회사'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르게 '상사와 부하 직원'보다는 그냥 '동료'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또 인턴인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농담도 걸어주시며 가끔 음료수를 사주신 점 이 글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제철사업부 권혜진

안녕하세요. 인턴 권혜진입니다.

KC코트렐 제철사업부에서의 2개월간의 짧은 인턴생활 동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양 현장견학과 브라질 CSP 프로젝트 Kick off Meeting에 참여해보면서 엔지니어 역할, 과정과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현장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KC 설비를 보며 집진기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와 업무에 매료되었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챙겨주시는 따뜻한 선배님들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커리어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과 공부해야 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에 미래가 기대되는 부푼 마음으로 한 발짝 전진할 것입니다.



해외사업부 김상현

Korean internships in the field of engineering are not easy to find, but KC Cottrell offers this rare opportunity for university undergraduates – one I could not miss out on.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한국 인턴직은 찾기가 쉽지 않지만, KC Cottrell이 대학 학부생에게 이 드문 기회를 제공하며 –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Coming to this company was a not a difficult decision, as I knew this internship would be the perfect chance for me to learn about how an engineering company operates and what working in my motherland is really like. 이 회사로 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인턴직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조국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Carrying two identities can be difficult at times as it leaves me with questions that most people already have answered. Being South Korean and having lived in the UK for almost 18 years, ‘where will you work in the future?’ is just one of the many questions that are asked by various individuals, and this internship at KC Cottrell is part of my search for answers.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답했을 질문을 받게 된다. 한국인이면서 영국에서 18년을 살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가 여러 사람들이 묻는 질문중 하나이고 KC Cottrell 인턴직은 나에게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다.

Obviously, as a university student with basically no experience in the real world of engineering, hoping to create innovative ideas for the company and produce detailed construction drawings from day one was an optimistic wish. 분명히,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 세계에 기본적으로 아무 경험도 없는 대학생으로서, 첫날부터 회사를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세부적인 건축 도면을 제작하는 것은 낙관적인 바람이었다.

The reality of working here is, is that you have a lot of time not working - taking a long coffee break with the other interns or uploading photos onto Facebook. However, there are times when you are bombarded with various tasks. Translation work, checking technical drawings, making presentations for new engineering technologies, hole punching paper files, organizing important engineering documents, reading and summarizing theses written on electrostatic precipitators and even collecting ice-cream and distributing it to the whole company on a hot day. 이곳의 실제 근무 상황을 보자면 일하지 않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 다른 인턴과 긴 커피 브레이크를 갖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일들이 쏟아지는 때가 있다. 번역 작업, 기술 도면 확인, 새로운 공학 기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종이 파일에 홀 펀칭하기, 전기 집진기에 대한 논문 읽기 및 요약하기, 심지어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사서 회사 전체에 나누어주는 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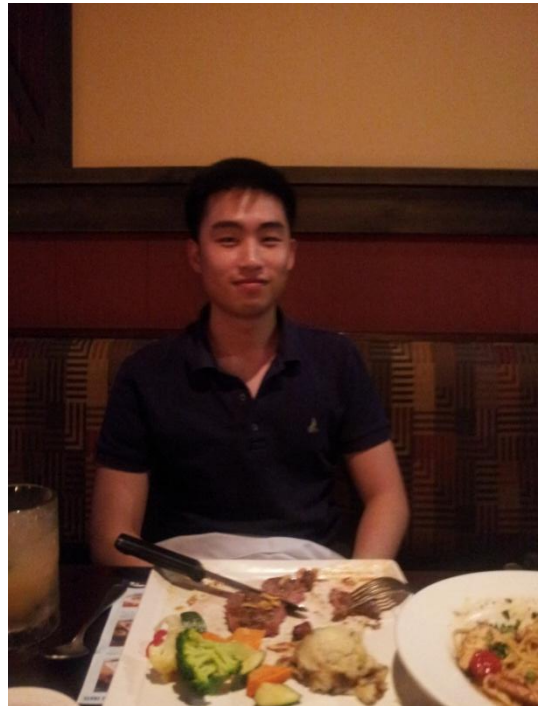
The working environment is very friendly and fairly relaxed, which is definitely not what I usually have in mind when it comes to Korean companies. Although it may sometimes feel as if people around you aren't giving you enough attention, this changes if you join the company football team or have a few drinks at company dinners. 근무 환경은 매우 친화적이고 여유가 있는데 이는 한국하면 나에게 떠오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회사 축구팀에 참여하거나 회사 회식에서 술 몇 잔을 함께 한다면 이 생각은 바뀐다.

Relaxing as it may be, the people here are by no means slackers. Everyone is working to keep to tight deadlines and carrying on even after I leave at 5.30pm. No one complains, but just gets on with it. I can see that a lot of people are enjoying what they are doing and take a lot of pride in working for KC Cottrell. 여유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은 결코 태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내가 5시 30분에 퇴근한 후에도 계속 일한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KC Cottrell에서 일하는 것에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very Friday might as well be called 'Food Friday'. The interns get together for lunch and have a feast at a nice restaurant, whether it is a seafood buffet or a family restaurant. The best part is, everything is on the company. For this reason, dinner is usually skipped on Thursdays. 매주 금요일은 음식 금요일(Food Friday)'이라 부르는 것이 낫다. 인턴들은 점심에 해산물 뷔페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좋은 레스토랑에 모여서 성찬을 함께 한다.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것이 회사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목요일에 저녁은 보통 먹지 않고 지나간다.

Lots of time may be spent in the office, but there are also exciting trips to the factory in Anseong and Gwangyang. These are probably the highlights of the internship, as they gave us an insight into what all the work back in Seoul actually produces. Visiting the constructions sites made me realize how massive the magnitude of the projects are and it made me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all the hard work done in the office.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안성과 광양에 있는 공장으로 흥미진진한 견학이 있다. 이것이 아마도 인턴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견학이 우리에게 서울에서의 모든 작업이 실제로 무엇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 방문으로 프로젝트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게 되었고 사무실에서 한 모든 노고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Looking back at my first month at KC Cottrell, I feel that it is an interesting and exciting company with big ambitions. Helping the environment in time where the world is full of gas guzzling factories and machines is not an easy job, but one that this company has taken on with pride. I have gained a lot of respect for this company and feel it will carry on being as successful as it has been in the years to come. KC Cottrell에서 나의 첫 몇 달을 돌이켜 보면, KC Cottrell은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회사라고 생각한다.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공장과 기계들로 가득한 세계에서 환경을 제때에 돕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회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왔다. 나는 이 회사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획팀 Edward Park

Maybe it's the rigors of college life or me just being cranky because I'm not really a morning person, but I miss being a child at times. It is my belief that innocence is the shield that protects us from the cruel reality of the world. As we grow, learn, and hopefully mature we naturally grow distant from our protector and people become clairvoyant. We begin to realize that the world is no longer as "amazing" or "shiny", things get dull. The reality is, and I should probably have said this in the first two paragraphs, but as we get older it gets harder to not notice the differences that set people or cultures apart. Like I said the differences are vast and to list all of them would not only be ridiculous, but would probably aggravate you as a reader because of the sheer volume of pages it would involve. And honestly, come on who actually wants to read I'm sure you all have much more important things to do >.<, so without further a due I present to you, Ed Park's Top Five things in Korea that make me say "Whaaaaat....???!!!": 대학생들이 만만치 않아서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 못 되는 좀 괴짜이기 때문 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가끔 아이였을 때가 그리다. 나는 순진함이 세상의 잔인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방패라고 믿는다. 성장하고 배우고 온 좋게 성숙함에 따라 우리는 자연히 이 보호막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은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세상이 더 이상 "놀랍거나" "찬란" 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일들이 따분해진다. 현실은 - 어쩌면 이 말부터 맨 위 두 단락에 했어야 했는데 -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나 문화들을 구분하는 차이를 모른 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내가 말했듯이, 이 차이들은 방대해서 이 차이 모두를 듣다는 것은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일일이 기술하는 데 따르는 엄청난 부피의 쪽수 때문에 독자 여러분을 더 힘든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서, 누가 실제로 읽고 싶어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뻔한 결과 찾지 않고 "와우!!!" 하고 내가 놀랄 수 밖에 없었던 Ed Park가 선택한 한국의 최고 5가지 것들을 선사한다.



Starting at #5.....The Idol Culture aka people, especially girls are way too concerned with their looks.....Alright, I won't lie; I too have fallen victim this. I mean come onnnnn who wouldn't fall for this Sooooo cuuteeeeeee....(or maybe it's because I'm Asian I wonder...) Just look at that face....it's perfect.....But seriously, isn't it? Alright, alright, I'm serious this time, there seems to be NOTHING wrong with her and this is a problem... a BIG PROBLEM. I commute by either train or subway every day and I swear I can honestly say that I think I've seen the same TGI Friday's (yes, they also have this in Korea for all you ignorant white folk...oh wait I forgot this is Korea...oops) waitress three times. Coincidence? I think not.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one of every five women in Seoul between the ages of 19 and 49 said they had undergone plastic surgery...31.5 percent of residents 15 or older were willing to undergo surgery to improve their looks. In 2007 the percentage was 21.5" Wait...Whaaaat?!?! So, so you're not the same cute waitress who served me an ice cold beer last Friday??? 5위부터 시작...일명 '사람들' (people)로 알려진 우상 (idol) 문화에서 특히 소녀들은 자신의 용모에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쓴다. 좋다. 거짓말은 안하겠다. 나도 역시 이것에 속은 적이 있다. 내 말은 누가 이 귀여움에 흠뻑 반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어쩌면 내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저 얼굴을 보라... 완벽하다... 그런데 정말 완벽하지 않는가?! 알았다... 이번엔 정말로... 이 여자에게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다... 아주 큰 문제다. 나는 기차나 지하철로 매일 통근하는데 맹세하지만 나는 TGI Friday 식당의 (맞다. 한국에서는 알지 못하는 백인들 모두를 위해 이 식당을 차려놓기도 한다... 아차, 여기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네... 어이쿠) 동일한 여종업원을 세 번 본 것 같다. 우연의 일치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19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 5명 중 하나가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15세 이상의 주민 31.5%가 용모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 2007년에 이 백분율은 21.5%였다. 잠깐...뭐라고? 그러니까 자네는 지난 금요일에 내게 얼음맥주를 갖다 준 그 귀여운 여종업원이 아니란 말인가???

For me at least, it has been harder and harder every morning on either the bus or the subway to stay awake because of the sheer number of look a likes I see every day. In no way, shape or form am I saying that I'm way better looking than anyone, I'm actually just a scrawny nerd who likes to play video games, drink beer, and day dream in the office. However, what I am trying to say is that a lot and I mean A LOT, of Korean girls look the same. Sorry, waitress from TGI Fridays, whose name I couldn't get because I didn't have the balls to ask, shit you're not her... DAMMIT, why do you all look alike?! Dr. Park (no not me, the last name Park takes up approximately 1/4 of the Korean Yellow Pages) was quoted in the New York saying "Koreans agree on what constitutes a pretty face... The consensus, now, is a smaller, more sharply defined youthful face – a more or less Westernized look. That makes 90 percent of Koreans potential patients because they're not born with that kind of face".... I really hope, I'm not the only one who sees in the problem with this...적어도 나에게는, 매일 보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아침마다 졸지 않고 깨어 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모양이나 형태를 말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잘 생겼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그저 게임, 맥주 마시기, 그리고 사무실에서 공상하기를 좋아하는 평범하고 취향이 독특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너무나 많은 한국 처녀들이 똑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안하다. 용기가 없어서 이름을 물어보지 못한 TGI Friday의 여종업원에게는... 제기랄...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다. 망할... 왜 당신들은 모두 똑 같은 모습으로 생긴 거요?! 박 박사는 (내가 아니고... 박 씨라는 성은 한국의 업종별 전화번호부의 약 1/4을 차지한다) 뉴욕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한국인들은 예쁜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현재 합치된 의견은 더 작은, 더 윤곽이 뚜렷한 어려 보이는 얼굴 - 다소 서구화된 용모다. 이 때문에 90%의 한국인이 잠재적인 환자인 셈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얼굴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이 문제를 나만이 보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WE ARE KOREANS, why are we trying to look like Westerners? Yes, I know speaking English and living in America is pretty awesome...But honestly, if I wanted to see Western looking people I would have just stayed in the States. We not only lose our identity as a nation and a people but then what becomes of our culture? What distinguishes us from the rest of the world? If we continue this trend then well... nothing... We also lose our own sense of identity and uniqueness. Think about living in a world with clones, it would suck, you would get so confused...seriously think about it. 우리는 한국인이다. 어째서 우리는 서양사람 외모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래, 나도 영어를 말하고 미국에서 사는 것이 멋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솔직히, 서구형 얼굴을 보고 싶다면 나는 미국에 그냥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뿐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는 어찌될 것인가? 우리를 나머지 세계와 구별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이 경향을 계속한다면 그때는 나머지 세계와 구별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 감각과 독특성도 잃고 있다. 복제생물(클론)들과 함께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라 정말 정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혼동될 것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 This also says a lot about our generation. We focus so much on what and how the celebrities look like; it spawns a culture of materialism. Come on people, not everyone can become a celebrity; we need to embrace that fact. Not everyone can afford Louis Vuitton, drive an Aston Martin and for you Korean women look like Hyuna. 이것은 우리 세대에 대해서도 많은 걸 말해 준다. 우리는 유명인이 어떻게 생기고 보이는지에 대해 너무나 많이 관심을 집중하는데 이것은 물질주의 문화를 낳는다. 모든 사람이 다 유명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다 루이 비통 (Louis Vuitton)가방을 메고 애스턴 마틴 (Aston Martin) 차를 몰고, 당신들 한국여성의 경우 현아 같은 용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hh myyy godddd look at her ass...wait I mean NO, BAD Hynua stop looking so damn good...in those pants...) If we could, then we would all be celebrities. I think what people need to understand is that you need to be yourself. So what if she has big eyes and blond hair...(맙소사, 여자 엉덩이 . 잠깐.. 나는 그런 뜻이 아니다. 현아는 저런 바지를 입고 이렇게 멋져 보이는 것은 그만 ...)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유명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녀가 큰 눈과 금발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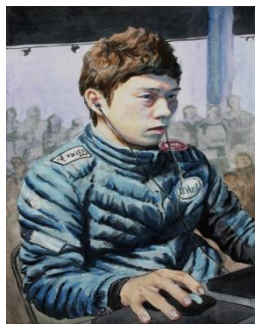
I can guarantee that you have something she doesn't, whether it being smarts or having over 120 APM in Starcraft 2. Everybody has something unique about them. So please, the moral of this section is that you ABSOLUTLEY, POSITIVLEY do not need to look like a celebrity. Instead just be yourself and if people or guys especially can't accept you for who you are then, well forget them, there's a lot of fish out there, it's a huge ocean. 나는 당신이 저 여자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이 현명함이든 스타크래프트 2에서 120 이상의 분당 명령횟수 (APM)를 기록하는 것이든. 모두는 각자 독특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절의 교훈은 당신은 유명인의 용모를 할 필요는 절대로, 결코 없다는 것이다. 대신 당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고 사람들이나 특히 남자애들이 이 상태의 당신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을 잊어버려라. 이 넓은 세상에 남자는 얼마든지 썩고 썩었다. Also, you don't want to look like... this... and if you're wondering, no... this is not a girl its Michael Jackson. Which brings me to my next point... 또한 당신은 이렇게 생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놀랐다면, 여자 아니고 Michael Jackson이다. ..다음주제로 넘어가자.



4....Dudes wearing make-up..... 화장하는 녀석들



(Uhhh...I thought Shinee was a boyband...?)샤이니, 남자밴드 아닌가?
Did I hear that correctly? Dudes, wearing make up? I said before I get confused real easily, but really, I'm REALLY confused. I thought make up was for girls... Apparently not...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 men have realized the value of an attractive appearance. As a result, the men's cosmetics industry is expected to surpass the 1 trillion won mark this year", whaaaatttt?!?!? . I feel as though the whole make-up and looking pretty is normal for girls, but really for guys wearing make-up? I know I've mentioned it multiple times; I'm just in a little disbelief. I thought Korean guys were supposed to look like this 내가 저 말을 올 바로 들은 건가? 화장하는 놈들이라는 것 말이다. 앞에서 나는 아주 다반사로 혼동이 된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로 심각하게 혼동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화장이 여자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코리아 타임즈 (the Korea Times)에 의하면 "상당수의 한국 남자들이 매력적인 용모라는 가치를 실현했다. 그 결과, 남성용 화장품 산업이 올해 1조원의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라고? 나는 이 모든 화장과 예쁘게 보이려는 경향이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남자들이 화장을 한다고? 나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던 것을 안다: 나는 좀 믿지 못하겠다. 나는 한국남자들이 이런 용모를 가지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



Ooops, my bad that's the North Korean Army, I actually meant this...아이고 저런 복한 군대이고..
(King of the nerds...known simply as the 'Emperor', I bow before you good sir)
황제로 알려져 있는 괴짜 중의 괴짜.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And then this 아니면 이것.



From King of Nerds to a body turned into a finely tuned weapon designed to destroy any communist threat (EH, HEMMM NORTH KOREA) this is more like it. Call me old fashioned but when my dad told me stories about his military service in Korea (which is mandatory for all Korean males) this is how I imagined what most Korean guys would look like before and after their service. Honestly, don't get me wrong I have nothing against guys wanting to look good and there are ways that guys can do that. But I just don't understand the whole concept of wearing make-up too look good. When you can simply (I guess required to go) to the army and come out a commy killing machine. It's been stated that some guys even wake up an extra hour early to get ready and put his make-up on. Come on guys an hour early? I live by the rule of waking up 5 minutes before class, that hour can be spent on recovering from heavy drinking from the previous night...And this comment just boggled my mind, according to Lee Jong-beom, who has been quoted in the Korea Times article stated that "We can wear any makeup products we want except for mascara...it doesn't look good on men and it makes us look gay"... Nooo, wayyy I had no idea dude!?!? 괴짜 중의 괴짜에서 어떤 공산주의자의 위협 (으으, 아마도 북한)이라도 격퇴하기 위해 잘 조정된 무기로 변신한 인체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더 어울린다. 나를 구식이라고 해도 좋는데, 나의 아버지가 한국에서의 군복무 (모든 한국남자에게는 의무적이다)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나는 대부분의 한국남자들은 군복무 전후에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었다. 술직이, 내 말을 오해 마시라. 내게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싶어하는 남자들에 대한 반감도 없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다. 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한다는 전체개념을 나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당신이 군대 (아마 소집되어)에 가면 공산주의자를 죽이는 기계가 되어 나온다. 어떤 남자들은 준비하고 화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더 일찍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남자들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고 하자. 나는 규칙적으로 수업 5분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 여분의 시간은 전날 밤 마신 술기운을 회복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런데 코리아 타임즈의 기사에 인용되어 실린 이 종범 씨의 발언은 내 마음을 오그라뜨린다. "우리는 마스카라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화장은 다 할 수 있다... 마스카라는 남자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으며 동성애자처럼 보이게 된다." 이런... 나는 전혀 몰랐는데 !?

(GAYYYYYYYYYYYYYYYYYYYY)

Keep wearing make-up and you might just end up looking like this...

(Yes, this is in fact a man...with a lot of make-up on...I hope you guys get the picture)

계속 화장을 하면 결국 이런 모습이 될지도 몰라요...



#3...Korea might as well be called the 'Blackout' country

For most of you old people, you probably are saying to yourselves, "blackout country? What is this kid on? We don't have frequent power outages". Actually, I meant that Korean's love their alcoholic beverages, even if they have work the next day. Like this guy... (I'm sure you all know this lovely guy... he'll drink you under the table literally, you've been warned) #3 한국은 '필름이 끊긴' 나라라고 불릴지 모른다. 대부분의 나이트 사람들의 경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정전 국가? 이 아이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정전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사실은 나는 한국인들은 다음날 일을 해야 하는데도 알코올 음료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이 남자처럼...(독자 모두 이 사랑스런 남자의 모습을 알 것으로 믿는다... 경고해 두었지만 이 남자는 당신을 취해서 굴아떨어지게 할 것이다.)



It is Korean culture to go drinking with co-workers after work. It is believed by much of the population that the quickest way to building a friendship is through regularly getting drunk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was cited in the New York Times, "South Koreans rank No. 13 in alcohol consumption over all but No.1 in hard liquor consumption...Koreans rank first in binge drinking: the goal is To drink as much as possible, as quickly as possible". Sooo pretty much the more you can drink the more, the more street credit you have. For all you light weights stateside, come to Korea and train because a bottle of Soju only costs about \$1. (Nice, your new best friend) 퇴근 후 동료들과 술 마시러 가는 한국문화에서 많은 이 나라 사람들은 우정을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서로간에 정기적으로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믿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인용된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남한 국민들은 전체적인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13위지만 독한 술의 소비에서는 세계 1위다... 한국인은 폭음 - 목표가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빨리 마시는 것 - 에서도 세계 1위다." 따라서 마시면 마실수록 거리에서 외상을 잘 할수록 술도 많이 마시게 된다. 자리를 옮기며 술 마시기 좋아하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면 좋다. 왜냐하면 소주 한 병이 겨우 1달러이기 때문이다.

#2...The people of Korea don't die of obesity

Being from the States I'm very familiar with this image:



(Umm, looks like someone has had too much McDonalds)

Yup, this is pretty normal in the States, but in Korea it's a bit harder to see. I'm not saying that a lot of Americans are obese, but a fair number of them are fat and out of shape. And I'm pretty sure it is because of the diet. Because I was fortunate enough to be born and raised in a Korean household I actually prefer the Korean diet to that of an American diet. For one, there are a lot more choices and two; it's much healthier for you.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the "Local cuisine primarily consists of vitamin-rich vegetables and fruit, thus minimizing the harmful effects of a meat-based diet. The Korean diet also high in antioxidants that promote longer living and is a reflection of a healthy culture". The same country that can also drink ridiculous amounts of alcohol is also the same country with one of the longest living populations. (To my fellow Westerners...hamburgers are not the answer...Kimchi is) Needless to say, Korea is a pretty neat country with some eccentric social dynamics. 한국인은 비만으로 죽지 않는다. 미국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미지에 매우 익숙하다: (음... 누군가 맥도날드를 너무 많이 애용한 것 같군요,) 그렇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매우 흔히 보는 장면인데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내 말은 많은 미국인이 비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상당수가 뚱뚱하며 몸매가 망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일상음식 때문이라고 믿는다. 운 좋게도 한국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나는 사실 미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한다. 첫째, 훨씬 더 많은 선택음식이 있고 둘째, 이것이 훨씬 건강에 더 좋은 음식들이다.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의 음식은 주로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로 되어 있어서 육류기반 식사의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한국의 일상음식은 장수를 증진하는 산화방지제의 함유가 높는데 이것은 건강한 문화를 반영한다. 불합리한 많은 양의 술을 마셔대는 똑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민 중의 하나를 가진 나라인 것이다. (나의 친구 서양인들에게... 햄버거는 답이 아녜요. 김치가 답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 일부 괴상한 사회적 동력이 있지만 매우 단정하고 깔끔한 나라다.



#1 KC Cottrell

Okay, okay, I know this may sound like me sucking up, but in all honesty KC Cottrell belongs on this list. Without this internship, I would not be able to have been able to be immersed into Korean culture, and in fact this is also my first legitimate internship.

KC Cottrell is really neat company and I hope it does become a global leader. Although I'm not an engineer, I do see an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hat KC Cottrell does. The world is only getting smaller and the human race, although it has made many strides, has been destroying our home in the process. What KC Cottrell is trying to do is, save the planet. By producing technologies that filter out the "bad" stuff such as dust and other harmful particles that are released as a byproduc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KC Cottrell is trying to protect the environment.

Although people may believe that a company is defined by its services or products, I believe it is the people who work for the company that truly define what it is. The employees here are driven and smart. For the most part I feel very welcomed here and it has been a place where I do not feel awkward, but rather comfortable. I have learned a lot about life and office ethics at my time at KC Cottrell, and I wish the best for the company in its future endeavors.

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첨을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KC 코트렐이 이 목록에 들어 있다. 이 실습훈련이 없었으면 나는 한국문화에 몰입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실 이것은 나의 최초의 적절한 실습훈련이기도 하다. KC 코트렐은 정말로 근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KC 코트렐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한다. 세계는 점점 더 작아지고 인류는 많은 큰 발전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류의 고향을 파괴해 왔다. KC 코트렐이 하려고 하는 일은 지구를 구하려는 것이다. 제조산업의 부산물로 방출되는 먼지와 기타 유해한 미립자 등 "나쁜" 물질을 여과하는 기술을 생산하여 KC 코트렐은 환경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들이 회사는 그 서비스나 제품에 의해 정의된다고 믿을지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정의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곳 직원들은 성취동력이 있고 영리하다. 대부분 나는 이 회사에서 환영 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 곳은 내가 어색함이 아닌 편안한 느낌을 갖는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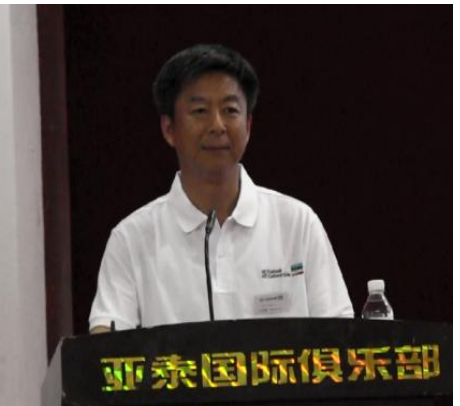
나는 KC 코트렐에서 보낸 시간에서 인생과 직장윤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회사가 미래의 알찬 노력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특집 3. 제철사업부 Workshop

지난 6월 20일 ~ 6월 24일 KC코트렐 제철사업부 WORK SHOP이 중국 장춘에서 실시되었다.
중국 방문 첫날 KC코트렐 제철사업부 35명이 장춘 KC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그 동안의 협업체계유지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 장춘 KC직원 70여 명과 제철사업부 직원이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차순근 상무님의 개회식 선언과 함께 장춘 KC 10년간의 사업보고와 장기 근속자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시상 및 KC코트렐에 대한 감사패 증정도 있었으며 임창호 상무님의 답례와 축하 말씀이 있었었다.



10주년 행사 후 진행된 화합의 장 및 저녁 식사시간에는 제철사업부에서 마련한 단체 유니폼을 입고, KC는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오늘이 같은 안형규 대리 / 김미옥 사원, 차순근 상무님과 이상순 선임이 안재욱의 ‘친구’를 한국어와 중국어 로 완벽하게 열창하는 동안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즐거워했다.



<마준 팀장님의 건배 투어>



<용기를 낸 김규백 대리의 건배 제의>



<제철사업부에 근무했던 Zhou Wenan PM과의 재회>



<화합의 자리>



장춘 KC 직원들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Work Shop 2일째 날 장춘으로부터 백두산이 위치한 길림 지역까지 버스로 5시간이나 걸리는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도백화에 도착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한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드넓은 평야 지대를 보면서 긴 여정에 지루하기도 했지만 옛 발해의 건국지인 초원을 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Work Shop 3일째 날이 밝았고, 제철사업부 팀원 전원은 버스를 타고 백두산 초입에 이르자 백두산의 웅장한 자태에 함성을 질렀다. 그 거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이 이미 해발 1500m 이상인 지점이었기에 날씨는 상당히 선선했다.

입구에서 천지 정상까지 또 다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직접 Tracking을 통해서 백두산 천지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조금 아쉽기도 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산인 백두산을 다른 나라의 글자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가득한 길을 따라 올라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 내 조국의 땅을 밟아 나감에 있어 그들이 닦아놓은 길과 그들이 정해놓은 규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못 내 안타까웠다.

약 30여 분을 기다린 끝에 각자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백두산 정상을 향해 달릴 수 있었다. 차는 자작나무 숲을 사이로 수많은 야생초와 거대한 계곡을 구비 구비 돌아 백두산 천지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날씨가 약간 흐린 상태였던지라 천지를 볼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약 100m 앞에 기다리고 있는 천지를 앞에 두고 잠시도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리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저 언덕 위에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고 동해물과 백두산이라 불려왔던 그 백두산 천지가 있을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걸음은 빨라지고 한걸음 두걸음 드디어...천지다

뭔가 시련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을 천천히 적시며, 그 동안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잡념과 온갖 불편했던 마음들이 한 순간에 날아가버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그 깨끗함과 시원함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너무나 잔잔하고 깨끗한 천지의 모습은 호수라기 보다는 마치 거대한 거인의 머리 위에 거짓말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박혀있는 보석 같았다.

백두산 천지는 등반 길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도 약 30% 정도 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고, 같은 날 등반한 사람들조차도 시간에 따라서 천지를 보는 사람들과 보지 못한 사람들로 갈릴 정도라고 한다.

20분쯤 지나 우리가 천지를 내려갈 때쯤부터 천지의 한쪽이 급격하게 밀려오는 구름에 가려지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천지란 백두산에 오르기도 어렵지만, 설사 올라온다 해도 날씨 때문에 천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다고 해서 천지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가이드의 농담이 새삼 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약 30여 분간의 짧은 조우였지만 내가 지금껏 살아왔고, 오늘을 살고 있으며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이 땅에서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천지 위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와 하나된 백두산의 모습을 사진 속에 남기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그렇게 백두산 천지에 작별을 고했다.





워크샵의 4일째, 우리는 서시로 유명한 유동주 시인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해 낸 용정중학교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실제 용정중학교 선생님께서부터 유동주 시인의 생애와 항일 투쟁의 전초지 역할을 했던 용정중학교의 역사에 대해 배웠다.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두만강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타고 가는 우측 편으로 두만강 줄기가 이어졌다. 폭이 좁은 곳은 채 7~8m 도 되지 않는 거리였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단지 쇠말뚝을 박아 놓은 것이 전부였다. 개울 하나만 넘어서면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 겨레의 반쪽이 있었다. 그 짧은 강 줄기를 넘지 못해서 지금도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 워크샵의 마지막 날, 우리는 연길 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처음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돌아왔을 때 책상에 쌓여있을 밀린 업무 걱정애 아마 대부분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제철사업부 직원 어느 누구 하나 이번 워크샵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가벼웠다. 장춘 KC 방문을 시작으로 백두산 Tracking을 포함한 많은 여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그만큼 얻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끔씩 힘든 여정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며 선임과 후임의 관계가 아닌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특집 4. 밝게, 활기차게, 상쾌하게 여름나기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여름철 컨디션 관리 노하우

뜨거운 태양, 한껏 자유롭고 여유 넘쳤던 휴가 탓에 헝클어진 생체 리듬, 싱숭생숭한 마음. 날씨만큼 변덕스러운 기분과 더위와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컨디션도 일어 업무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시즌이다. 젖은 미역처럼 눅눅해진 몸과 마음을 뽕뽕뽕뽕 활기차게 충전해줄 8월호 액션플랜 주제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활력 회복 노하우**다. 뽕뽕 떠다니던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밸런스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일의 능률도 살아난다. 생기 있는 모습에 동료들까지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해피 바이러스가 퍼진다. 휴가 후 유증과 직장인 사춘기를 극복하고 더위도 물리치는 특별한 여름나기 비결을 공유해보자.

01 여름휴가 후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복귀 가이드

신나는 여름휴가는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지만,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은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피서지에서 이어지는 늦은 밤의 여흥,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로 때우는 끼니, 늘어지게 자는 습관 등 평소와 다른 휴가 스케줄이 일상 복귀를 방해한다. 한 취업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4명이 휴가 후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휴가 후유증'을 앓는다고 한다.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짧게는 1~2일, 길게는 1~2주가 걸린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 긴 휴식 뒤에 오히려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멍하니 먼 산만 보는 신입사원의 푸념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 함께 극복해보자.

잠을 다스리는 게 급선무

해외여행으로 10시간 내외의 비행을 했다면 시차 적응을 위한 수면 조절이 필요하다. 날짜 변경선을 오간 장거리 휴가가 아니었다 해도 흥에 겨워 여름밤을 지새우기에 십상인 만큼 평소의 수면리듬이 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규칙적인 리듬을 찾기 위해서 '30분 일찍 일어나기'를 시도해보자. 한밤 앞서 시작하는 여유로운 출근길에 평소에 읽던 책을 이어서 읽는 것도 평상심 회복에 도움이 된다. 심리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30분을 덜 잤다는 아쉬움은 점심시간에 보충해보자. 단순히 수면 시간을 늘리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역지로 누워 오지 않는 잠을 청하는 건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가볍게 5~10분 정도 동네 주변을 산책하고 가볍게 땀을 흘린 후 체온에 가까운 30°C 중반 온도로 샤워하면 나른한 피로감이 깊은 잠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활력식단으로 에너지 업

휴가지의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과 야식, 음주는 영양소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식단일뿐더러 자극적인 맛과 강렬한 향으로 복귀 후 입맛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휴가 복귀 후에는 당분간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담백한 메뉴를 위주로 다양한 비타민, 영양소 섭취에 신경을 쓰자. 그렇다고 특별한 건강식을 찾을 필요는 없다. 채소 위주로 다양한 식재료가 고루 들어간 비빔밥이 점심 메뉴로 적당하다. 찜 채소를 위주로 한 식단도 비타민 함유량이 많지만, 상추가 식곤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찜으로 식사하면 과식할 우려가 크니 고려하자. 식후에는 카페인 함유량이 많은 에너지 음료나 커피, 탄산으로 각성하는 대신 10분가량 낮잠을 추천한다. 신선한 샐러드와 생과일주스로 녹색 채소와 과일을 챙겨먹는 것도 기력 충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체질과일인 포도는 섭취 즉시 에너지로 바뀌는 포도당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제격이다. '활력식단+카페인 절제+낮잠 10분'으로 점심시간을 조절한다면 2~3일 후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추억은 돌우고 미련은 털어내고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경은 업무 복귀 후에도 한동안 눈앞에 아른거리며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당연지사. 이럴 때는 팀원들과 하Arp 공유할 수 있는 ‘여행 정보 공유 폴더’를 만들어보자. 여행지에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현지 맛집, 관광 명소, 기념품 가격은 물론 직접 체험한 여행 코스와 프로그램 등 여행 정보를 정리하다 보면 휴가의 추억은 살아나고 남은 미련과 무기력을 떨쳐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팀원 간 서로 휴가 지를 추천해주면서 다음 휴가를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의 목표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팀원들이 서로의 가이드가 되어 다음 휴가를 디자인해준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원들의 대화 시간도 늘고 휴가로 느슨해진 파이팅도 금세 되살아날 것이다.

02 여름철 직장인 사춘기 극복을 위한 가이드

사춘기는 십대에 졸업한 줄 알았다면 착각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사춘기 청소년처럼 우울하고 반항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을 앓는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입사 3년 차, 15년 차에 많이 경험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해마다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나’, 혹은 ‘이 일이 나와 잘 안 맞는 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다니 그저 ‘이 나이에 무슨 사춘기’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다. 매사가 귀찮아지고 평소 몰두하던 일이 부질없이 보이고 그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직장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점검해볼 때다.



하루, 한 주 단위의 짧은 목표를 세워 완수하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나 업무가 지루하고 흥미가 덜하다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짧은 집중과 성취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업무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게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학습 플래너를 이용해 단기에 과목별 목표를 달성하듯, 작은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내에 실천하면 성취감도 높아지고 마음을 다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 가볍게 일기를 쓰는 기분으로 당일의 완수 업무를 기록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성취도가 시각화되고 업무의 흐름이 분명해져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목표는 도전의식을 일깨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준다. 그렇게 단기적인 목표를 완수해나가다 보면 분기, 반기, 일 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 한 달 단위의 주력 대신 일주일 단위의 주력을 구매해 짧은 목표와 성취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다.

가끔은 나에게도 선물을 하자

수년 차 직장인이 되면 사실 칭찬이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다. 웬만한 사고를 치지 않는 다음에야 무난한 일상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 그럴 때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방법도 삶과 일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한 달 동안 지각하지 않은 나에게, 보름 동안 금주한 나에게’ 당당하게 선물을 사주자. 과소비는 절대 금물이지만 평소 취미생활이나 유흥을 최신 유행패션 아이템을 고르고 브랜드끼리 비교하고 구매하는 동안에 첫 월급을 타고 쇼핑 계획을 짜던 사회초년생 무렵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상담은 안경을 끼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처방

우리나라에서 정신 관련 상담을 받거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회적 금기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상담 사실이 알려지면 팀원이나 가족이 지나친 염려나 걱정을 하지는 않을까. 행여 정신력이 약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비치는 건 아닐까 두렵고 눈치가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적 어려움은 육체적 병증과 같이 초기 관리나 솔직한 대화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신건강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만으로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는 만큼 용기를 내어 전문가를 찾아보자. 정신과 전문의 우종민 박사는 저서 <뒤집는 힘>에서 ‘직장인을 위한 역발상 심리학’을 권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지 않으면 인생은 더 재미없고 지루하며, 불만에 차게 된다”고 지적하며 스트레스와 불만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카운슬링을 제시한다. 직장인 사춘기 극복 방법을 전하는 전문 서적들을 읽어본 후에도 우울함이 계속된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지 원 팀 이 상 민 팀 장
 제 철 사 업 부 김 규 백 사 원
 기 획 팀 윤 제 연 대 리
 해 외 사 업 부 김 재 수 선 임
 관 리 팀 이 정 식 과 장
 임 원 정 문 택 상 무
 관 리 팀 최 성 관 차 장
 기 획 팀 여 주 희 대 리
 재 무 관 리 팀 홍 세 라 주 임
 관 리 팀 서 정 철 부 장
 관 리 팀 박 은 향 사 원
 기 술 지 원 팀 홍 정 희 팀 장
 베 트 남 지 사 염 동 균 법 인 장
 업 무 팀 김 유 화 사 원
 관 리 팀 조 은 주 차 장
 업 무 팀 정 행 순 차 장
 에 너 지 아 이 유 미 사 원
 지 원 팀 배 수 정 과 장
 재 경 팀 이 강 호 사 원
 전 략 구 매 팀 정 희 정 사 원
 지 원 팀 하 혜 진 사 원
 지 식 경 영 팀 이 상 한 사 원

KC NEWSLETTER

Editing Team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